

# 주일 예배 순서

- 강림절 제2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 148:1-5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41장(새 20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새 116번(스크린 참조)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저희의 마음에 채우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생명이 이 땅에서만인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어긋난 방향과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영생을 향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빌립보서 2:1-8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봉 헌(offering) ..... 360장(새 324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찬 송(Hymn) ..... 504장(새 451장)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를 갖습니다.
3. 다음 주 친교 후에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4. 동북 오하이오 교역자 모임을 한마당교회 주최로 내일 갖습니다.

### <기도제목>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헤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말씀묵상〉 빌립보서 2:1-8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1. 사도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1-4절) 나는 교회 안에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5-8절) 예수님의 마음에 비취볼 때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대방이 나와 잘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안 맞는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다 보니 부딪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맞는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안 맞는 이유는 단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깎고 그 사람과 맞추어 나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데,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고치려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지적과 판단입니다. 이런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연합은 고사하고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아 미워하고 관계를 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비밀비재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든지 지키고 품어야 할 영적인 대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마음과 한 사랑과 한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겸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한 마음에 머무는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전인격적인 겸손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겸손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결코 연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겸손은 곧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나는 혹시 아직도 자아를 붙든 채,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 연합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